



■ 르포 / '여순항쟁' 유적지를 가다

# “제주도민 학살 명령을 거부한다”

제주 4·3 수형생존인들  
14연대 주둔지 등 탐방  
“특별법 조차 제정 안된  
여순항쟁 현실 안타깝다”



주철희 박사가 제주4·3 연대 관계자들에게 14연대 주둔지 설명을 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도 애국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우리들을 출동시키려는 작전을 거부한다.”

제주 4·3이 낳은 또 다른 비극 ‘여순항쟁’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났다.

18일 역사학자인 주철희 박사는 4·3도민연대와 수형생존인 등 27명을 대상으로 ‘여순항쟁 유적지 탐방’을 진행했다. 전날 제주4·3도민연대가 순천대학교에서 ‘제주4·3, 여순항쟁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뒤 전남 여수를 방문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항쟁의 도화선이 된 국방경비대 14연대 주둔지였다. 제주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 1948년 10월 19일 군인 약 1400명이 봉기한 곳이다.

1400명 가운데 집행부라 할 수 있는 800명은 지리산으로 가기 위해 여수역을 향했고, 나머지는 여수나 광양 등 각자의 고향으로 흩어졌다.

군인의 봉기는 미군정에서 이승만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사회적·

경제적으로 불만이 고조됐던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지지를하면서 여수와 순천, 구례, 광양 등으로 불길처럼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국 9개 연대 중 7개 연대를 투입하는 토벌작전을 펼치면서 민간인 1만여명이 팔강이로 내몰려 목숨을 잃었다.

주철희 박사는 “14연대가 봉기를 일으킨 이유는 4·3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김익렬이 14연대장으로 있으면서 관련된 내용을 신문에 기고하고, 동료들에게도 알리면서 비롯됐다”며 “여기에 군 주요 지휘관이 일분군이나 만주군 출신이었다는 점도 이들이 불만을 품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탐방지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여수시 마흔동 ‘형제묘’였는데,

1949년 1월 13일 인근 국민학교에 수용됐던 민간인 125명이 총살돼 불태워진 곳이다. 이후 시신을 찾을 수 없었던 유족들이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함께 있으라며 모를 쓰고 비석을 세웠다. 마치 제주의 ‘백조일손 지묘’를 연상케 한다.

주 박사는 “유족 가운데는 아들이 총살되는데도 말 한 마디 못하고 지켜본 어머니도 있었다”며 “당초 비석에는 희생자의 이름이 기재됐지만 여순항쟁에 연루된 사실을 꺼리는 일부 유족에 의해 대리석으로 가려져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발굴 작업도 논의 됐지만 일부 유족들의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형제묘는 특별법 조차 제정되지 못한 여순항쟁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했다.

이에 대해 양동운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제주는 4·3평화공원 봉안관이라는 곳이 있어 희생자를 안치하고 있다”며 “유해 발굴과 인지는 국가폭력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형제묘와 인접한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 묵념을 하며 넋을 위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방화복 잘 어울리나?... 직업체험하는 청소년들 19일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서 개최된 청소년문화올림픽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 공군과 소방관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했다. 이상국기자

## 제주 학교 안전사고 발생 1위 ‘불명예’

2018년 31명당 1건... 학생수 대비 발생 전국 최고

지난해 제주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학생 수 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학교 안전사고 11만4260건이 발생했다. 학생 49명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체육수업(32.5%)과 점심(21%), 휴식·청소(15.4%) 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고, 이 중 상당수가 물리적 힘에 노출(39.1%)되거나 넘어짐(26.4%), 충돌(13.8%)이었다.

제주도내 학교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해 학생 31명 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고 발

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32명 당 1건), 강원(36명 당 1건), 경기(40명 당 1건) 등의 순이었다.

매년 사고 발생 건수도 늘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내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는 2016년 2421건에서 2017년 2430건, 2018년 259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하루빨리 명예 회복되길 바랍니다”

4·3 수형생존인 오히춘 할머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식 참석



4·3수형 생존인 오히춘 할머니.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일대에 사이렌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4·3 당시 제주도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촉발된 ‘여순항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는 소리다.

여수시의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여순항쟁 유족과 시민은 물론 4·3희생자유족회와 4·3도민연대 등 제주에서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여순항쟁이 제주4·3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연대해 대응하자는 취지다.

공교롭게도 두 사건 모두 ‘동백꽃’을 상징으로 뱃지 등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수십 년 억울함을 풀어난 4·3수형생존인 오히춘(89) 할머니는 “살아서 여순항쟁 추념식에 참여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1948년 전주 형무소 수감 당시 여수와 순천 사람들이 많아 여순항쟁은 초기부터 알

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형무소 내 죄수복 제작 공장에서 같이 일도 하고, 밥도 먹으며 친하게 지냈다. 내가 제주에서 왔다고 살갑게 대해준 것이 기억난다”며 “제주4·3은 명예회복이 점차 이뤄지고 있지만, 여순항쟁은 아직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하루라도 빨리 모두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제주 4·3과 여순항쟁은 역사적 공동체이며,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특히 제주도민 학살 명령을 거부한 14연대의 봉기는 우리 제주도민이 꼭 알아야 하는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여순항쟁 유족회와도 교류를 시작, 본격적인 연대를 벌이기로 했다”며 “다만 여순항쟁 유족회가 지역별로 나뉘는 측면이 있어 구체적인 교류 방안은 추후 결정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 “제주 4·3 외면 국회, 개탄스럽다”

4·3 유족 국회 앞 집회  
4명은 식발... “정쟁 몰두”

“4·3 특별법 개정에는 한 치의 진전도 없이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회에 기대할 것도 없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답을 해야 한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18일 국회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4·3 영령에 대한 노제를 봉행했다.

유족인 강은택·현영화·김성도·장임학 등 4인은 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국회를 향해 항의의 의미로 식발을 했다. 유족들은 지난 6월 국회 앞 집회에서 상복 투쟁에 나선 바 있

다.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에 분노한 유족들이 식발을 택한 것이다.

김성도씨는 “4·3을 외면한 국회를 개탄한다. 정부와 국회는 4·3을 변방 취급하고 있다. 이에 유족 4인은 유족들을 대표해 식발로서 우리 뜻을 담은 결연한 의지와 그 뜻을 국회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되면 제72주년 4·3 추념식 행사장에는 국회의원의 입장을 거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국정감사 일정상 참석하지 않았다.

유족회는 제주지역 국회의원에 문 대통령과 유족회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부미현기자

## 명상수련원 원장 구속 지법 “증거인멸·도주우려”

속보=지난 15일 제주시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해당 수련원 원장 H(58)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유기치사와 사채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H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에서 A(57·전남)씨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부인은 9월 1일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출동 결과 A씨는 명상수련원 모기장 안에서 부패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송은범기자

**JS SEA FOOD (주)제주태양냉동수산물 (냉동수산물 전문 종합 식자재 유통)**  
(각종 얼어·해산물·수산물·어패류) 식당·호텔·학교·기업·관광시 납품

회·포장 배달 전문 · 제주지역 당일주문 당일배송 · 서귀포지역 및 시외지역 당일주문 익일배송

**냉동 수산물**  
·뚝배기 재료 ·소주방재료 ·가오리 ·옥돔 ·메로 ·낙지  
·해물탕 재료 ·횃집 재료 ·쭈꾸미 ·동태 ·한치 ·아구  
·알탕 재료 ·일식재료 ·공치 ·고등어 ·꽃게 ·성게알  
·중화요리재료 ·한식재료 ·문어 ·갈치 ·대구 ·전복

**활어 해산물**  
·광어 ·자연산활어 ·전복 ·한치  
·우럭 ·문어 ·개불 ·방어  
·참돔 ·명게 ·생연어 ·오도리  
·활고등어 ·소라 ·전어 ·각종해산물

Tel. 064)722-6308 Fax. 064)751-6308 www.jejusunmall.com

**제주도전역 매일납품 가능**  
판매장에서 도매가로 회와 해산물을 구입후 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판매장 | 용담1동 387(용두암 수산센터) 식당 | 용담1동 386(월척수산)

◆일반여행업 252호 ◆ 2억원 보증보험가입

**가자 일영투어 T.727-2277**

**다낭 3박5일** 11월 20일 출발 12월 11일 출발 792,400원~ 국내선 포함, 대한항공 부산경유

**하롱베이 12월 28일** 899,000원~

**방콕 5일 특가** 599,000원~ 방콕/차앙마이 899,000원~

**말레시아 4일** 699,000원~

**브루나이 3박5일** 12월 21일 단 1회 12월 25일 단 2회 1,590,000원~ 골프 1,690,000원~

**대만/아류/지우펀/스핀/단수이 4일** 499,000원~

**홍콩/마카오 4일** 697,600원~ 제주 직항 **북경 4일** 492,000원~

**북경/장가계 897,000원~** 상해·주가각점 593,300원~ 상해-장가계 999,000원~ 제주 직항 **매일출발**

**말레시아 관광 4박5일** 제주 직항 **쿠알라룸푸르/말라카/젠링 5일** 화·목 출발 799,000원~ **두나리여행 쿠알라룸푸르/싱가포르 999,000원~** 5일 화·목 출발, 6일 월·토 출발 **말레시아 골프** 별도문의

**역시람방+중국오악 서안 진시왕릉 5일/6일** **목일출발 691,200원~**

**다낭/호이안/후배 5일** 제주 직항 **999,000원** 상시출발 **전환문의**

가자 일영투어 **공통/사양**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전용차량료, 일정상의 식사, 관광지 입장료, 1억여원 여행자보험,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직항 외 해외상품: 사이판, 싱가포르, 무이산하루, 장가계, 하니문, 호주, 시드니 등